

第 6 回 에너지 經營人 懇談會

鄭根謨 科學技術處長官 特別講演

韓國에너지協議會가主催한 제6회 에너지經營人懇談會에서 特別演士로 초청된 鄭根謨 科學技術處長官은 “에너지技術開發 및 原子力發電技術 長期展望”이라는 主題발표를 통해 원자력정책기조와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난 7월 1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李煥逸동자부장관, 安秉華한국에너지협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에너지협회의 會員社와 동자부산하기관의 경영인 등 150여명의 에너지界 指導級人士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에너지협회의 金相演사무국장의 司會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安秉華회장은 開會人事를 통해 「韓國에너지協議會에서 每分期마다 定期的으로 개최하는 에너지經營人懇談會에 鄭根謨과기차장관을 特別演士로 모시고 우리의 當面課題인 「에너지技術開發과 原子力發電技術의 長期展望」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에너지각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계시는 경영인 여러분과 같이 에너지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의의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鄭長官을 소개했다.

講演에 앞서 忠南大德에서 열린 科學技術振興會議에서 大統領에게 보고한 「大德研究團地 造成計劃」 슬라이드를 상영하였다.

이어 鄭根謨장관은 오늘아침 존경하는 李煥逸동자부장관과 安秉華한국에너지협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귀빈여러분을 모시고 에너지技術開發과 原子力發電技術의 長期展望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問題는 이미 TEXT로 인쇄되어 있기때문에 에너지에 관련한 평소의 느낀점을 부연해서 피력하였다.

鄭長官은 韓國에너지協議會가 1985년 12월에 발

족되어 '87년 서울에서 WEC 國際執行理事會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에너지界가 국제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인 에너지의 갈길을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작년 몬트리올大會에서는 에너지와 環境問題가 주제가 되었는데, 에너지(Energy)는 에너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環境(Environment), 經濟(Economics)의 전반적인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이와같은 EEE의 방향에서 研究開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에너지技術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複合技術이라는 것이다. 사실 原子力發電所를 건설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은 원자로의 기술이지만 여기에는 토목,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각종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러分野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Systems Approach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지며 체르노빌事故이후 한걸음 더 나가서 人間工學까지 대두되어, 조작하는 운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安全性이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複합적인 Systems Approach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너지技術開發에 있어서 또하나의 命題는 技術自立, 技術從屬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엔지니어링문제와 메뉴팩처링문제, 또는 제작·제조의 문제에서 技術從屬을 벗어나려면 구시대의 技術自立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創造와 革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懇談會는 鄭根謨장관의 해박한 지식으로 에너지 研究開發에 대한 정책방향과 견해를 피력하여 參加者들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강연을 경청하였으며 會員社間의 에너지情報交換과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성황리에 에너지經營人懇談會를 끝마쳤다.

에너지 세미나開催

國內外 에너지環境과 主要課題

韓國에너지協議會와 韓國에너지研究會는 지난 9월 7일 럭키금성 TWINTOWER 이벤트홀에서 “에너지産業의 當面課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에너지 關聯團體, 學界, 業體 및 研究機關등 관계인사 75名이 참석한 가운데 盛大하게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서울大學校 金浩卓 教授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會順에 의하여 韓國에너지研究會 崔東奎 會長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崔會長은 개회사를 통하여 최근 國內外 에너지環境은 中東紛爭으로 흥미상태가 거둬지고 있어 에너지 需給安定은 물론 經濟安定까지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같은 중대한 시기에 韓國에너지協議會와 에너지研究會가 共同으로 우리의 當面課題를 도출해보고 향후 對策方案을 모색하고자 오늘과 같이 討論의 場을 마련한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意味있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늘의 모임이 有益하고 建設的인 意見을 도출하여 우리의 에너지政策과 에너지産業의 發展에 米력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韓國科學技術院 安柄勳 教授는 이 주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關係인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한 것을 발표한다고 전제하고 “國內外 에너지環境과 主要課題”(24페이지 참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安教授는 최근 國內外 에너지情勢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라크의 奇襲的인 쿠웨이트 侵攻으로 그간 우려해온 '90年代 中반의 제3의 石油危機 상황이 앞당겨져 石油의 供給 불안과 原油價格 暴騰危險이 加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상황 전개에 대응해 나가

는 過程에서 에너지부문의 소부문간의 조화있는 연계가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하고 電力部門과 가스部門간, 石油部門과 電力部門간, 石油部門과 가스部門간, 石炭部門과 電力部門간 등 供給部門間的 연계, 에너지節約/效率向上 등 이용부문과 供給部門間的 연계등 단편적인 에너지원별 政策을 統合計劃化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오늘의 토론은 각자의 소속분야에만 집착하는 내향적인 시각에서 인접부문과의 연계상의 課題와 對應策을 허심탄회하게 檢討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주제발표를 끝마쳤다.

10분간의 휴식에 이어 각부문별 討論이 진행되었는데 電力部門은 韓國電力公社 辛滿鐵 處長, 石炭部門은 서울大學校 金泰由 教授, 石油部門은 (株)油公 金守弼 이사, 가스部門은 韓國가스公社 金琥經 本部長, 新再生에너지 部門은 韓國動力資源研究所 吳正茂 前任研究部長, 地域暖房部門은 韓國地域暖房公社 簡榮錫 理事, 에너지節約 部門에는 에너지管理公團 崔京夏 理事등이 각 해당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치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토론자들은 에너지 各部門에서 상호협조체제를 강조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여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이 끝난후 참석자중에서 補充質問과 討論이 있었는데 韓國動力資源研究所의 조명제 에너지기 연구부장, 손영목 분석부장, 전홍석 자연형태양 열연구실장, 김인기 자원개발연구부장과 動資部의 김세종 전력국장, 에너지관리공단 최기련 대체에너지개발센터 소장, 韓國電氣研究所 권영한 기술정책연구실장 등이 討論에 참가하였다.